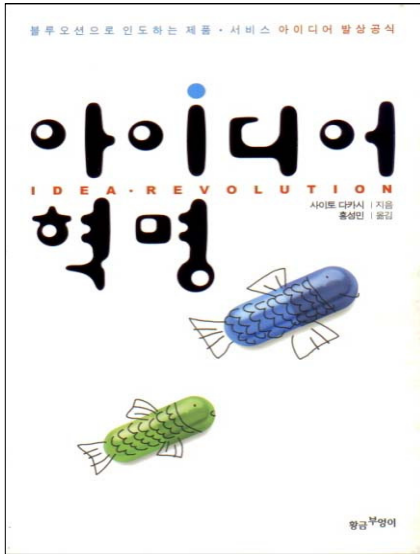


아이디어 혁명



- 지 은 이 : 사이토 타카시
- 옮긴이 : 홍성민
- 발행연도 : 2006
- 출 판 사 : 황금부엉이

이 책은 아이디어의 발상법에 대한 이론과 논리, 경험과 체험에 대하여 쓴 글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누구나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잘 채택되지 않으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책은 “아이디어는 누구든지 낼 수 있다”고 하며, 아이디어 도출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5가지 아이디어 발상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은 아이디어 싸움이다. 아이디어는 상품개발이나 프로젝트같은 큰 영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 매출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시민만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지혜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관리자의 임무이고, 리더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특별한 아이디어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디어는 누구든지 낼 수 있다. 능력이 잠재해 있지만 단지 발휘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무(無)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축적된 개념이 있고, 여기에 연장선을 긋는 것, 변화를 더하는 것이 아이디어이다. 신선한 아이디어도 사실 분석해 보면, 반드시 논리적인 과정이 존재한다. 아이디어가 나오는 과정을 이해하면 논리적, 필연적으로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메이지 대학의 교수로서 교육학과 신체론,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을 전공하였던 학자이다.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신문 컬럼리스트와 텔레비전 교육프로그램 기획자, 연출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자의 '신체감각을 살린다'라는 책은 2001년 신조학예상을 수상하였고, 암송과 낭송을 강조한 '소리내어 읽고 싶은 일본어'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일본인이다.

가장 창의적이라는 모차르트도 사실은 모방의 천재였다. 저자는 많은 아이디어가 모방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며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발상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는 빈칸 채우기로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이다. 빈칸채우기란 OO 박스 속에 어떤 단어를 넣어서 전화박스, 가라오케 박스, 영화박스, 수면방 같은 히트 상품들이 나오게 된 것처럼 박스라는 키워드를 축으로 하는 것들 중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중복피하기'와 '연결하기'를 하는 것이 아이디어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신체감각에서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이다. 신체기능과 감각을 중심으로 한 아이디어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습관을 의식화하여, 즉 암묵지(暗默知)를 형식지(形式知)로 바꾸어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을 소개한다.

셋째는 스케일형 발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소 무리라고 할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착오를 하다보면, 결국엔 성공하게 되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다.

넷째는 변형의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아이디어 개발에서 주로 기존 상식을 버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상식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변형할지를 생각하다 보면, 기존 상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저자는 아이디어를 낳는 회의법을 소개한다. 회의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서로의 암묵지(暗默知)를 형식지(形式知)로 바꿔주는 훌륭한 수단이 되고 생각의 공유가 이루어져, 여기서 수준 높은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민선4기의 서울시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창의와 상상력을 유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팀이나 과에서 자신의 사업이나 정책, 일상 업무와 관련된 것들 속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면 좋을 것이다. 또 시민들이 자신의 업무나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으로 삶의 품격과 질을 높이는 데도 이 책은 도움이 될 것이다.

김찬동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소 개

- 추천글 - 생활 속 아이디어에서 발명된 스팀청소기
- 머리글 - 아이디어는 반드시 생긴다
- 1장 '빈칸 채우기'로 아이디어를 낸다
- 2장 '신체감각'에서 아이디어를 찾는다
- 3장 '스케일형 발상'으로 생각하라
- 4장 변형의 기술
- 5장 아이디어를 낳는 회의법